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4분기 미 노동 생산 향상... 노동 비용 청신호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올라... 여전히 팬데믹 전에 근접
- FinanceYahoo: "미 금리 인하의 실마리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 WSJ: 관세 부과, 미 소비자와 기업 보험료 상승 일으킬 수 있어

[미국 금융]

- FinanceYahoo: 연방 재무장관 "연준, 단기 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관심"
- FinanceYahoo: 씨티 그룹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금 3천불 갈 수 있다"

[미 행정부]

- WSJ: 4만명 이상 연방 공무원 사직

[에너지]

- WSJ: 미 원유 비축량 예상보다 늘어

[인공지능]

- WSJ: 미 의회, 정부 기기에 DeepSeek 사용 금지 추진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트럼프 무역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 초래 가능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FinanceYahoo: 포드 CEO "트럼프 관세 장기화되면 수십억불 손해"
- Bloomberg: 언더아머,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Bloomberg: 실내 스포츠 용품 펠로톤, 수익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5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tivity Rises at Solid Pace, Helping Limit Labor Costs

4분기 미 노동 생산 향상... 노동 비용 청신호

- 미 노동 생산성이 4분기에 견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 향상했다는 신호다.
- 비농가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 조정치로 생산성이 2.3% 상승했고, 4분기에도 연간 비율로 1.2% 향상됐다.
- 작년 전체적으로는 2.3% 상승했다. 이는 인력 감소 등이 있던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생산성 급등을 제외하고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다.

- 단위당 노동비용(단위 생산량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3분기에 0.5% 수정치로 상승한 후에 3% 증가했다.
- 이는 좋은 소식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시장의 압박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Pick Up, Still Near Pre-Covid Levels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올라... 여전히 팬데믹 전에 근접

- 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지난주에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지난 2월 1일 끝나는 주에 신규 청구건수는 11만건 늘어난 21만9천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예상치는 21만3천건이었다.
- 이는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ADP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채용은 견조했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발언했었다.

Bloomberg 기사

FianceYahoo: Why the labor market could be the only hope for another Fed rate cut "미 금리 인하의 실마리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 트럼프의 안정되지 않은 관세 정책으로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 그 실마리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찾고 있다.
- 지난 9월, 연준은 금리를 0.5% 인하했는데, 당시 실업률이 예상보다 올라가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준이 그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 씨티 그룹의 분석가 Stuart Kaiser는 "현재 실업률이 가장 큰 리스크 요소다. 이 지표가 향후 주요 지표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견조한 노동시장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연준은 노동 시장의 빠른 악화를 희생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시사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Tariffs Could Lead to Higher Insurance Prices for U.S. Consumers, Businesses**관세 부과, 미 소비자와 기업 보험료 상승 일으킬 수 있어**

-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 보험 서비스를 수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미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부품은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당 보험료가 3천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미손해보험협회(APCI)는 설명했다.
- 또한 차량, 기업체, 주택을 교체·보수 비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나면, 보험업체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보험뿐만 아니라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보험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FinanceYahoo: Bessent says he, Trump are focusing on 10-Year yields, not Fed****연방 재무장관 “연준, 단기 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관심”**

- 청문회 인준을 받은 신임 연방 재무장관이 Scott Bessent는 “트럼프 행정부는 차입 비용 둔화를 위해서 연준의 단기 금리가 아니라 10년 국채 금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와 나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관심이 있다.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 특히 그는 에너지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솔린 등 에너지 요소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FinanceYahoo: Citi sees gold soaring to \$3,000 on tensions triggered by Trump**씨티 그룹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금 3천불 갈 수 있다”**

- 씨티 그룹은 향후 3개월 내 금값이 온스당 3천불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에 의한 지정학적인 긴장과 무역 정책 때문에 금이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 재촉발, 글로벌 상거래 혼란 등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을 지키고, 연준이 금 보유고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FinanceYahoo 기사

[미 행정부]**WSJ: More Than 40,000 Federal Workers Have Resigned So Far, Short of Target****4만명 이상 연방 공무원 사직**

- 4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여전히 원하는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 연방 인사 관리처(OPM)는 공무원들에게 퇴직 여부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결정하라고 지난주에 말했다. 퇴직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아도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의 5%에서 10%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천억달러가 절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산출 근거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 현재 민간 일자리로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은 2백만명이다. 이들 중 일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인사처의 요청에서 제외되었다.

WSJ 기사

[에너지]**WSJ: U.S. Crude Oil Stockpiles Rise More Than Expected****미 원유 비축량 예상보다 늘어**

- 미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 원유 비축량이 예상 이상으로 늘었다.
-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1월 31일로 끝난 주에 870만 배럴 증가한 4억2천3백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130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었다. 전략 석유 비축량은 25만 배럴 증가한 3억9천5백10만 배럴을 기록했다.
- EIA는 미 원유 생산량을 전주보다 하루 23만8천 배럴 증가한 하루 1천3백48만 배럴로 추정했다. 원유 수입은 하루 46만7천 배럴 증가한 690만 배럴, 수출은 하루 64만5천 배럴 증가한 430만 배럴을 기록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Lawmakers Push to Ban DeepSeek App From U.S. Government Devices

미 의회, 정부 기기에 DeepSeek 사용 금지 추진

- 미 의회가 보안 우려로 정부 소유 기기에서 DeepSee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미 의회가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Josh Gottheimer은 "적들이 우리의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문 Feroot Security의 최고 경영자 Ivan Tsarynny는 DeepSeek가 중국 국영 통신사 China Mobile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코드를 숨겨줬다고 말했다. China Mobile은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World Inflation at Risk of Rekindling With Trump's Trade War
트럼프 무역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 ING 글로벌 거시 연구 책임자 Carsten Brzeski는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고령화 사회, 기후 변화 같은 커다란 구조적 문제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현재 10% 관세가 부과된 중국은 물론 여러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잠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 연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빨랐다. 달러 강세는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시장들을 괴롭히고 있다.
- 지난 1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핵심 테마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 세계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측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FinanceYahoo: Ford CEO: Trump tariffs would wipe out billions in profits if they're long lasting

포드 CEO “트럼프 관세 장기화되면 수십억불 손해”

- 포드 CEO Jim Farley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인상이 미국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가 장기화되면 자동차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어제 수요일 밝혔다.
- 전문가들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자동차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UBS 연구원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 수입의 26%, 캐나다 수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 Farley는 “몇 주 동안은 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겠지만, 그 이후엔 회사에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미 자동차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지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Under Armour's Guidance Boost Shows Turnaround Progress

언더아머,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언더아머가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 조정 영업 이익은 1억9천5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전 수익 전망 최고치인 1억 8천5백만 달러를 넘어섰다.
- 지난 분기 매출은 5.7% 감소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3억4천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 언더아머는 몇 년간 실망스러운 실적 이후 작년 4월, 창립자 Kevin Plank를 다시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 그는 할인율을 낮추고 재고량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eloton Posts Profit Beat and Raises Guidance, Shares Surge

실내 스포츠 용품 펠로톤, 수익 전망 상향 조정

- 오늘 목요일, Peloton이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순이익이 7천만 달러에서 8천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평균 5천1백80만 달러를 예상했었다.
- Peloton은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 Peloton은 매출이 약 14% 감소해 6억2천5백만 달러에서 6억5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가들은 6억5천3백40만 달러 매출을 예상했다. 즉, Peloton은 매출은 감소했지만, 비용 절감 덕분에 수익이 증가한 것이다.
- 올해 1월 1일 Peloton에 취임한 CEO Peter Stern의 비용 절감 전략은 성공했다. 하지만 팬데믹 당시 Peloton의 놀라운 성장세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재무 "트럼프, 연준 아닌 국채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 의약품과 조선업 지목하며 "관세 목적은 美 제조업 재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려고 하는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촉구에 대해 질문받고서 "그와 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는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지만,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5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I. 2024년 미국경제 동향 및 2025년 전망

1. 2024년 미국경제 동향
2. 2025년 미국경제 전망

II.

1.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원인과 전망
2.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3. 주요 투자은행의 25년 미국 정책금리 전망 주요내용 및 특징

한국은행 경제 보고서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